

봉암 변월주의 포교사상

김응철*

• 목 차 •

- I. 서 언
- II. 봉암의 행장과 포교활동 전개 과정
- III. 봉암의 포교 사상과 특징
 - 1. 중도불이의 실천
 - 2. 혜학선수의 수행
 - 3. 자기정화의 선행
 - 4. 화익보은의 전법교화
 - 5. 모성중심의 포교
- IV. 봉암사상의 포교 실천방안 모색
- V. 결 어

*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 『大覺思想』 제30집 (2018년 12월), pp.137-163.

한글요약

본 논문은 봉암 변월주의 행장과 저술을 분석하여 그의 포교사상을 도출하고 그것을 현재의 포교현장에서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봉암의 행장은 출생하여 출가하기 직전까지의 제1기 세속적 삶의 시기, 수행과정을 경험한 제2기 출가 수행기, 그리고 교수로서 전법교화에 앞장선 제3기 교수 재직기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가 남긴 저술을 분석하여 포교사상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봉암의 포교사상은 중도불이의 실천, 혜학선수의 수행, 자기정화의 선행, 화익보은의 전법교화, 그리고 모성중심의 포교 등이다. 봉암은 스님이면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교육포교를 통한 전법교화에 앞장선 인물이다.

주제어

봉암, 변월주, 승려, 불교학자, 포교, 중도불이, 혜학선수, 자기정화, 화익보은, 모성교화

I. 서언

봉암 변월주(1909~1975)의 삶과 수행 및 포교활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첫째는 학생 신분으로 3.1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가담하여 퇴학을 당하고 옥고를 치루는 삶의 과정이 후세에 귀감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장성 백양사로 출가한 이후에 교학을 공부하고 선원 안거를 통해 선과 교를 겸비한 수행자의 삶을 영위하였기 때문이다. 셋째는 스님이면서 학자로서의 삶을 병행하였기 때문에 당대의 스님들에 비하여 많은 저술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 보면 봉암은 독립운동의 결단력, 수행자로서의 수행력, 그리고 학자로서의 전문성 등을 겸비한 매우 독특한 이력을 보여주고 있다. 봉암의 일생은 일제 강점기, 정화 및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 태고종 창종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일관된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였음을 보여준다. 봉암은 출가수행자이면서 동시에 학자였으며, 포교사였고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동시대를 살아온 스님들의 다수는 전통불교의 테두리 속에서 적응하며 종단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일부는 세속으로 돌아가거나 비승비속의 삶을 영위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봉암은 해인사 주석, 마산대학 교수, 대광사 입적에 이르기까지 이관승으로서 도제 양성에 앞장섰다.¹⁾

봉암은 마산대학에 재직하면서 금강경 강좌를 비롯하여 교학과 선학을 강의하면서 후학을 지도하였다. 이 시기에 봉암이 추구하였던 불교사상 및 그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는 몇 편의 논문으로 조명된 바 있다. 그렇지만 봉암의 포교사상에 대한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관심을 갖는 연구자가 많지 않았고 또한 연구 분

1) 이수창(마성), 「峰庵 邊月周의 生涯와 思想」, 『大覺思想』 제22집, 2014, pp.121-169.

석에 필요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마성스님의 노력으로 『봉암문집』의 초고가 완성됨으로써 봉암의 포교사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구축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봉암문집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봉암의 포교사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봉암은 직접적으로 포교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활동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데 매진하였다. 때문에 봉암의 포교사상은 후학지도에 필요한 이론적 접근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봉암의 행장 분석을 통해서 포교활동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봉암이 기고한 글들을 통해서 그가 추구했던 포교사상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필자의 과문함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봉암의 모든 글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하여 봉암이 제시한 사상을 정확하게 추출하여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교적 관점에서 봉암의 사상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없기 때문에 시론적 연구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봉암의 포교사상 설명에 필요한 개념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II. 봉암의 행장과 포교활동 전개 과정

봉암 변월주(1909~1975)의 삶은 크게 3기로 기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봉암의 생애에서 제1기는 출생하여 장성 백양사 약수암에 의탁하기까지의 세속적 삶의 시기이다. 1909년에 출생하여 1929년 21세에 출가할 때까지의 시기를 출가 준비를 위한 세속적 삶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출가 전 봉암의 청소년기를 살펴보면 당시에 평범한 가정의 자녀로는 쉽게 입학하기 어려운 장성보통학교, 광주고보 등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에 속한다. 이 시기의 봉암은 뛰어난 학생이었으나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옥고를 치루고 감시를 당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

문에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봉암은 장성 백양사 약수암에 주석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이 출가를 결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봉암 인생의 제2기는 출가수행기(1930~1954)로 명명할 수 있다. 그의 수행은 1930년 22세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수지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34년 26세에 대화암사 화엄학림 대교과를 졸업하고, 1936년 28세에 백용성 스님으로부터 전법계를 수지하고 용성문도의 일원이 되었다. 1938년 30세에 해인사 법보학원 강사로 임용되었으며, 1940년 32세에는 산청 대원사 강사로 위촉되었다. 1941년 33세에 조선불교선종 중앙임원 선임되었고, 1944년 36세에 해인사 지정 산청포교사로 임명되었다. 이때에 이미 봉암은 선방 10하안거를 성만하였다. 그리고 1948년 39세에 해인사 영림공사 이사장(상무취재역)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수년간 봉암은 해인사에 주석하면서 수행과 주어진 소임에 전념하였다. 봉암의 능력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은 33세에 종단 중앙위원으로 선임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종단의 주요 인사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봉암 행장의 제3기는 교수 재직기(1955~1975)로 분류할 수 있다. 1955년 해인대학 교수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으며, 1956년 해인대학이 마산으로 이전하고 1961년 마산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될 때도 교수직을 유지하였다. 1962년 비구대처의 갈등이 종료되고 통합종단이 출범할 때 봉암은 통합종단 비상종회의원으로 참여하였다. 1968년 마산대학이 학교법인 삼양학원으로 넘어가고 종교과가 폐지될 때 까지 교수직은 계속 유지하였다. 그러나 학과가 폐지되면서 사표를 제출하고 진해 대광사에서 수행에 몰두하던 봉암은 1975년 입적하였다.²⁾

교수 재직기에 봉암은 강의자료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후학들이 읽어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불교적 관점과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하

2) 이수창(마성), 위의 논문, pp.127-130. 봉암의 생애는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여 여러 잡지에 지속적으로 기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불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와 같이 봉암의 행장을 분석해 보면 포교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시기는 해인사 주석하면서 소임을 보고, 산청포교사로 활동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봉암의 포교활동의 특징은 사찰 포교, 지역 포교, 그리고 교육 포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찰 포교는 해인사, 진해 대광사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였고, 지역포교는 합천, 산청, 마산 등의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교육 포교는 주로 해인 대학, 마산 대학 중심의 대학생 대상의 포교 활동을 주로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의 포교활동은 일반적으로 교육, 조직, 복지, 문화, 수행 등의 다섯 가지 패러다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교육 포교는 가장 중요한 도심포교의 핵심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봉암이 이미 1960년대부터 승만경을 텍스트로 하는 교육포교를 제안하고 실천한 것은 봉암의 선구자적인 포교적 안목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마산대학은 해인사에서 출자하여 해인대학으로 출발하였으나 운영방법이 미숙하여 운영경비를 확보하지 못해 삼양학원에 넘어 갔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견디면서 봉암이 마산대학 교수로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것은 교육포교에 대한 사명감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교단에서 활동한 교수로서의 이력이 교육 포교적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성과를 측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봉암의 강단에서 배운 사람들이 이후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보여주었는지를 알 수 있다. 봉암이 지도하였던 해인대학의 종교교과와 마산대학에서는 현대 한국불교에 큰 영향을 준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하여 많은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수학하였다. 때문에 봉암의 교육 포교는 이들 제자들에 의해 실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봉암은 수행포교 방법으로 젊은이들에게 수식관을 가르쳤으며 간화선

수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법 수행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위빠사나와 사마타 수행 붐이 불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이미 50여 년 전부터 봉암의 수행포교 원력은 시대를 앞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Ⅲ. 봉암의 포교사상과 특징

봉암의 포교사상은 그의 행장과 실천적 활동, 그리고 남겨놓은 저술들을 통해서 분석해볼 수 있다. 봉암은 해인대학과 마산대학 교수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강의교재와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피력하고 남겨 놓았다. 본고에서는 봉암의 포교사상을 중도불이의 실천, 혜학선수의 수행, 자기정화의 선행, 화익보은의 전법교화상, 모성중심의 포교 등 다섯 가지로 축약하였다.

1. 중도불이의 실천

봉암은 각종 기고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중도불이(中道不二)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봉암의 중도불이 사상은 “마음과 불(佛)과 중생”을 불이(不二)로 보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중요시 하였다. 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마산대학교 교수 시절의 기고한 다음의 글에서 명확하게 피력되고 있다.

화엄경에 말하되 ‘마음이 공예사(工藝士)와 같아서 가지가지 오음(五陰)을 그려낸다. 일체세계 가운데 법(法)을 만들어 내지 아니함이 없나니 마음과 같아서 불(佛)도 또한 그러하며, 불(佛)과 같아서 중생도 또한 그러한다. 마음과 불(佛)과 중생과의 이것이 차별이 없다.’³⁾

3) 변월주, 『炎涼世態觀』, 마산대학교보, 1964, pp.106-118.

봉암은 이 글에서 화엄경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마음작용은 색수상행식의 오음(五陰)으로 형성되고 그 기능은 마치 공예사와 같아 무엇이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초기 경전에서 도공의 비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르침이다. 도공이 그릇을 빚어내듯이 “마음 작용은 오온의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 내며, 현상을 인식하는 마음 작용은 부처님이나 중생과 본질적 차별이 없다”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부처님은 ‘깨달은 중생’이며, 중생은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님’이라는 선사들의 표현과도 일맥상통한다.

모든 불(佛)은 일체가 심(心)으로 쫓아서 굴러짐을 분명히 알아 만일 사람이 이와 같이 해득(解得)하면 저 사람은 진불(眞佛)을 본다.⁴⁾

이러한 표현은 진정한 견성성불이란 심(心)의 작용을 올바르게 체득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부처님이 되든 중생이 되든 그 시작은 오음으로 나타나는 마음 작용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다름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봉암은 “자기의 취미와 의욕의 입지가 확정되었다면 일향매진(一向邁進)하여 쓸모 있고 보람 있는 결승점 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실천적 목표달성을 강조하였다.⁵⁾ 이는 실천이 전제된 학문, 사회를 이익되게 하는 불교를 강조하는 실사구시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

봉암의 실천적 중도불이는 유심연기(唯心緣起) 사상을 토대로 한 인업(引業)과 만업(滿業)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인업(引業)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구상을 하는 것으로, 만업(滿業)은 채색과 세선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화가가 처음에 소화(素畫)로 그림의 테두리를 내는 것을 인업(引業)에 비유하고, 그 소화에 각가지 채색(彩色)을 넣고 세선(細線)을 그어서 그

4) 위의 논문, p.109.

5) 위의 논문, p.107.

림을 완성하는 것을 만업(滿業)과 같은 것이다.⁶⁾

봉암은 인업(引業)으로 말미암아 사람이라는 총보(總報)의 과(果)를 받고, 만업(滿業)으로 인하여 별보(別報)의 과(果)를 받는다고 하였다. 만업의 차이가 별보로 다양한 차별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상계의 모습이다. 봉암은 현상계에서는 물질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물질(物質)을 도의적인 생의 도구(道具)로 잘 사용하면 물질을 살리는 것이 되고, 물질을 쌓기만 하고 탄장(呑齏?)한다면 물질을 죽이는 것이 됨으로 일종의 죄과(罪過)를 면치 못할 것이다.⁷⁾

봉암의 중도불이는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중요시 하였으며 심재불이(心財不二), 즉 정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가 둘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앞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물질을 삶의 도구로 잘 사용하면 물질을 살리는 것이고,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면 물질을 죽이는 것이 된다고 보았다. 결국 물질과 그 물질을 사용하는 마음이 중도로 나아가 갈 때 사회적 실천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피력하였다.

봉암이 일관되게 주장한 중도불이의 실천은 불교의 보편적 개념이며 보살행의 근원이다. 이러한 주장은 많은 경전에서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이지만 봉암은 이를 특히 교육포교의 현장에서 실천원리로서 활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2. 혜학선수의 수행

일생을 전법교화를 위해 수행자이면서 교육자의 길을 걸은 봉암 변월

6) 위의 논문, p.109.

7) 위의 논문, p.117.

주의 교학적 원리는 혜학선수(慧學先修)로 요약할 수 있다. 혜학선수란 지혜 수행을 먼저하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지계행과 선정수행을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봉암은 계정혜 삼학 중에서 혜학을 먼저 닦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흔히 용공(用工)하는 사람들이 원대력소(願大力小)를 개탄(慨歎)하지마는 오인(吾人)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정발정근(正發正勤)으로 추진하여 아니 될 것 없는 것도 일종의 체리(諦理)라고 확신하는 까닭에 현대판 열반을 제창하는 바이다. 첫째 선교를 막론하고 삼학(三學)을 실수과로 드는데 혜학(慧學)을 선수(先須)로 하고 싶다. 현대에 계정리학(戒定二學)의 완수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존중할지언정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⁸⁾

봉암의 이와 같은 주장은 “현대의 복잡한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도득(到得)할까 하는 것이 일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열반(涅槃)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에 이르고 체득하게 하는가의 방법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앞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현대인들이 서원하는 바는 크고, 실천하는 힘은 약하다고 개탄하지만 올바르게 발심하고 올바르게 노력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부합하는 열반에 도달하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봉암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현대에서 계정혜 삼학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까닭에 혜학을 먼저 체득하고 지계와 선정을 점차적으로 닦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계정혜 삼학에서 지계행을 공통적으로 닦으면서 선정과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초기불교부터 강조된 수행방법이다. 앙굿따라니까야에서는 깨달음과 관련하여 제기된 몇 가지 사례들이 언급되어 있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세 부류의 수행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훌륭한

8) 邊月周, 「涅槃의 實相」, 『佛敎界』 제10호, 1968, pp.14-15.

하고 고결한 깨달음에 도달한 수행자인가를 논하는 내용이다.

사리뵈따 존자는 사윳타 존자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사리뵈띠] “사윳타 존자여, 이 세상에는 몸으로 체험한 자, 견해로 얻은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등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도반이여,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존자는 누가 가장 훌륭하고 고결하다고 보십니까?(A3:21)⁹⁾

세 부류의 수행자 중 첫째는 몸으로 체험한 자인데 이들은 신증자(身證者)라고도 하며, 비물질적 선정의 단계까지 성취한 수행자를 의미한다. 둘째는 견해로 얻은 자들인데 이들은 견도자(見到者)라고도 하며, 지혜에 탁월한 수행자를 일컫는다. 그리고 셋째는 믿음으로 해탈한 자들인데 수신행자(隨信行者)라고도 하며, 이들은 삼법인을 체득한 수행자들에 속한다. 수신행자 중에서 그 원리를 지혜로써 통찰하는 자를 진리의 행자 수법행자(隨法行者)라고 한다.¹⁰⁾

선정과 지혜를 체득해 가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를 갖추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처님 재세시의 제자들 중에서도 선정과 지혜 중 어느 것을 먼저 닦아야 하는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부처님은 “어떤 것을 먼저 닦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먼저 닦은 사람도 점차 선정력을 갖추어야 하고 선정력을 갖춘 사람도 반드시 지혜를 수반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바 있다.

봉암은 이러한 수행자의 유형 중에서 “견해로 얻은 자” 즉 정견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계정혜 삼학의 수행은 모든 수행자의 기본적 덕목이다. 그러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기에 따라서 선후를 둘 수는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하여 봉암은 혜학(慧學)을 통해 먼저 열반로(涅槃路)를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계(戒)는 정(定)의 방편행

9) 전재성역주, 『양긱따라니까야3』, 한국빠알리협회, 2007, pp.63-66. ; 대립스님 옮김, 『양긱따라니까야1』, 초기불전연구원, 2006, pp.333-336.

10) 拙稿, 「깨달음 논쟁, 그 오래된 역사」, 『불교평론』 제66호, 2016, pp.8-29.

이요 정(定)은 혜의 도화선(導火線)¹¹⁾이라고 보아서 정지견(正知見)을 먼저 주장한 것이다.

정혜(正慧)로 목적의 열반을 바르고 곧게 찾고 닦음으로써 계정(戒定)도 정(正)으로 될지언정 정혜가 없고 계를 선수하면 방편을 목적으로 오인하여 열반을 우회(迂廻)할 수도 있지 않다고 보증(保證)하지 못할 것이므로 혜(慧)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 글을 보면 봉암은 정혜(正慧) 즉, 정지견이 없으면 계행도 올바르게 닦을 수 없고, 올바른 선정력도 갖출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열반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계가 청정해질 수 없고, 선정을 깊이 체득할 수도 없다는 것이 봉암의 관점이다. 최상의 무주처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유루지견(有漏知見)의 지혜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계가 청정해지고 선정이 깊어짐으로써 무루지견(無漏知見)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을 알 수 있다.

봉암의 주장에 따르면 자성계(自性戒)와 자성정(自性定)은 정혜(正慧), 즉 올바른 지혜를 체득함으로써 가능해 진다는 의미이다. 그는 혜학선수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사의 말씀에도 ‘마음이 평등하면 어찌 괴롭게 지계(持戒)하라’ 또는 ‘심지에 그른 것이 없으면 자성계(自性戒), 마음 땅에 산란 없으면 자성정(自性定)’이라는 구절은 정혜(正慧)가 아니면 그 비오(秘奧)를 음미하기 어렵다.¹²⁾

“올바른 지혜로 목적하는 열반(涅槃)을 바르고 곧게 찾고 닦아야 지계와 선정도 올바르게 닦을 수 있다.”는 것이 봉암의 주장이다. 올바른 지혜

11) 邊月周, 위의 글, p.15.

12) 위의 글, p.15.

즉, “정혜(正慧)가 없이 계(戒) 만을 선수할 경우 방편을 목적으로 오인하여 열반을 우회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혜학 선수의 포교 방법으로 봉암은 염불선을 주장하였다. 봉암의 염불선은 ‘문성(聞性)’에 의지하고 있다. 문성(聞性)은 견문각지(見聞覺知)의 본성(本性)을 강조한 능엄경의 가르침 속에 포함되어 있다.¹³⁾ 봉암은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이 바로 소리를 듣는 문성(聞性)이 있기 때문이며, 문성은 소리의 진동이나 소리의 멸절(滅絶)인 정(靜)을 인지하기 때문에 생멸동정(生滅動靜)에 무관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듣는 성 즉 문성(聞性)을 반문(反聞)하는 정진을 계속하면 삼매에 들어서 능문(能聞)인 듣는 주체와 소문(所聞)인 들리는 내용이 모두 소멸되는 경지를 체득할 수 있다고 염불선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3. 자기정화의 선행

봉암이 수행하고 활동하던 시기는 정화의 소용돌이가 불교계를 몰아치고 있었다. 봉암은 제1의 정화와 제2의 정화로 구분하고 제1의 정화는 정화(淨化)가 아니라 쟁화(爭禍)라고 규정하였다. 제1의 정화기는 광복이 이후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를 말하고, 제2의 정화기는 태고종이 조계종단에서 분립한 1964년 이후의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봉암은 이와 같이 주장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교단불교는 어디까지나 육화(六和) 생활에 입각하여 교세확충은 그 교단에서 명안중사가 배출케 하여 그와 같은 후계자를 양성하고 타(他)에 법시(法施)를 힘쓰는 것을 정화(淨化)인줄 알았더니 법(法)을 이기는 폭거로서 막상 집권을 해놓고 십여 년 동안 법시교권에는 유의하지 않고 물질의 외재권(外財權) 장악에만 혈안이 되어 종풍(宗風)은 땅에 떨어저도 아무런 처방도 강구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또다시 내분(內紛)의

13) 황정원 풀어쓰, 『우리말 능엄경』, 운주사, 2013, pp.184-185.

내분까지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¹⁴⁾

봉암은 정화라는 이름으로 사찰 운영권을 장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안종사의 배출과 법시교화를 등안시’하는 종단의 실정을 지적하고 있다. 법시교화가 부정되는 정화운동은 자기정화가 안된 자가 종단정화를 주장하는 모순으로 “일맹(一盲)이 중맹(衆盲)을 인도하는 망거(妄擧)”로 규정하였다. 이 말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다수의 무지한 사람들을 이끌어 갈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강조한 표현이다.

조태분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이후에도 조계종단 내부의 갈등을 상당기간 지속된 것은 사실이다. 봉암은 이와 같은 불교계의 실상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사찰정화라는 이름의 갈등은 쟁화(爭禍)라고 본 것이다.

봉암은 쟁화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제2의 정화운동인 자기정화 운동을 제창하였다. 종단 정화 과정이 자기 정화로 이어져야 정화의 목적이 완성될 수 있고, 사회정화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봉암의 주장이다. 또한 봉암은 자기정화의 방법으로 염불(念佛), 염법(念法), 염승(念僧)하는 향풍(香風)이 사회로 퍼져 나가고, 조고각하(照顧脚下)의 자세로 자성(自性)을 닦는 공덕으로 사회정화에 이바지할 것을 역설하였다.

자기정화는 불교정화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기왕에 벌어진 정화가 자기 정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봉암의 소망이면서 교육 포교의 목적으로 자리 잡았다. 포교는 비신도를 신도로 만드는 일차적 포교와 신도들이 정법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이차포교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찰의 문을 두드리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지만 적절한 교육과 지도가 없기 때문에 다시 퇴전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봉암과 같은 뛰어난 교학자들이 전국에서 다양한 교육포교에 동참한다면 불자들의 신심이 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14) 邊月周, 「우리 宗團의 反省의 해로 自己淨化에 于先하기를」, 『佛敎界』 제17호, 1969, p.18.

4. 화익보은의 전범교화

화익보은(化益報恩)은 “중생을 교화하고 이익되게 하여 삼보의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이다. 봉암은 불교의 은덕(恩德)을 입은 사람이 당연히 불타(佛陀)에 대한 보은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았다. 보은의 실천 방법에 대하여 봉암은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첫째는 스스로 불도를 깨쳐서 부처님의 혜명을 있는 것이고, 둘째는 부처님의 인행을 본받아서 중생고(衆生苦)를 대신 받은 것이고, 셋째는 번민하는 중생을 불법문(佛法門)으로 인도하는 교화활동이다. 봉암은 이 중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은의 실천이라고 하였다.

화익(化益)은 교도화익(教導化益)의 준말로 “가르치고 이끌어서 이익되게 하는 전범교화활동”을 의미한다. 전범교화, 중생구제 활동이 곧 불은(佛恩)에 보답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봉암의 화익보은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화익(化益)의 세부적인 방법으로 봉암이 제시한 내용은 첫째, 번뇌의 때를 불식한 언행으로 세파에 시달리는 사람의 마음을 안돈(安頓)시키는 것, 둘째, 불교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빈곤을 타파하는 일, 셋째, 인과(因果)의 법리에 따라서 물질의 무상함을 깨닫고 지족심(知足心)을 발하여 허황한 탐욕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봉암은 1960년 대 말의 사회상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대저(大抵) 현하(現下) 우리 사회는 부정(不正)이 있음으로 부패(腐敗)가 있고, 부패가 있음으로 허부(虛浮)한 사치(奢侈)가 있으며 다시 원한(怨恨)과 선망(羨望)을 비저낸다. 이 원한과 선망이 다시 욕구불만의 분화구(噴火口)에서 살상자학(殺傷自虐)으로 폭발하고 만다. 그러나 그 악이 어디까지 뻗칠런지 정지선(停止線)을 측량할 수 없어도 과문(寡聞)의 탓인지 그 근본을 조치(調治)하는 방술(方術)은 아직 이렇다한 것을 듣지 못함이 유한(遺恨)이다.¹⁵⁾

15) 邊月周, 「佛敎와 人生」, 『佛敎界』 제19호, 1969, pp.11-12.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 사회적 부패 현상을 만들어 내고, 부정과 부패로 모은 돈들이 헛된 사치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원한을 갖는 사람과 부러워하는 선망의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이 원한(怨恨)과 선망(羨望)이 다시 욕구불만과 남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학대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당시의 사회상이고 사회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 봉암의 진단(診斷)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봉암의 사회정화(社會淨化) 사상이다. 봉암은 불교의 사회정화 운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천태만상의 사회실정에 귀감(龜鑑)이 되는 불교를 활력소로 쏘고 다져서 정진(正眞)의 사회로 추진하고 상하차별 없이 위와 같은 정념을 간직하도록 하면 이것을 정화(淨化)라 하고 지극히 도저(到底)하면 불국토가 건설된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¹⁶⁾

봉암은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회실정에서 불교가 귀감이 되고 올바르게 진실된 사회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념(正念)을 간직하면 그것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이고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으로 관찰하였다. 그리고 “불교의 사명은 미혹한 사람을 깨우치고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1970년은 한국불교태고종이 종통을 계승한 새로운 종단으로 출범하는 해였다. 이때에 이르러 봉암은 태고종의 종도로서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염경원융(念劫圓融)의 견지에서 종지(宗旨)를 전포(傳布)하고 다 같이 대동합심(大同合心)하여 종도 각자의 책임을 완수할 것을 촉구하였다.¹⁷⁾

16) 위의 글, p.12.

17) 邊月周, 「한국의 새로운 불교로서」, 『佛敎』, 제2호, 1970, pp.16-17.

5. 모성중심의 포교

봉암은 새로운 종단을 창종(創宗)하는 조건으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종주(宗主)의 법안(法眼)과 덕망(德望), 둘째는 법통을 계승한 제자의 지안(智眼)이 고매(高邁)한 인격, 셋째는 법력과 덕품을 사모하여 운집한 학자들을 제접할 수 있는 도량을 갖추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봉암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는 종통의 계승자, 법성을 지치는 후계자의 중요성이었다. 봉암은 태고종단의 인적 자원의 빈곤함을 개탄하면서 보우국사와 같은 청안납자가 종풍을 거량한다면 이에 대응할만한 중사가 얼마나 되는지 자문하였다.

태고종은 태고보우 대사의 법통을 계승하여 창종하였으나 지혜로운 수행납자가 부족하였고, 포교활동도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에 봉암은 당시의 사회상황에 비추어 여성교양에 중점을 둔 포교활동과 사회사업을 강조하였다. 봉암은 포교활동의 초점을 모성교화(母性教化)에 집중해야 하며 그래야만 청소년 포교도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봉암의 이러한 포교적 안목은 현대사회에서도 적합한 것이다. 불자의 대부분은 여성이고, 여성 포교는 곧 남성과 자녀들에 대한 포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포교방법임에 틀림이 없다.

2세들의 사상의 향방과 장래의 희망이 모성교화에 의한 영향력이 지대한 함은 물론이요, 모성의 애정은 부처님의 자비심과 상통하는 것이므로 미래의 국가사회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부처님 정신에 입각한 모성애로 미연에 선도하면 효율이 높을 것이다. 사고 후에 수습하기 보다는 사반 공배(事半功倍)¹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승만경의 강좌를 제시하는 것이다.

봉암은 모성포교를 위한 부덕양양운동을 제시하고 승만경 강좌를 통해

18) 노력은 적게 들었어도 이루어진 공은 큰 것을 의미한다.

서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승만경은 원효대사가 소를 지어 당시에 화익(化益)을 끼쳤고, 일본불교에서도 남자에게는 유마경, 여성에게는 승만경 사상을 교육함으로써 국민성 정초작업을 하였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그는 교리를 해독시키는데 『승만경』이 매우 중요한 경전임을 강조하였다.

IV. 봉암사상의 포교 실천방안 모색

봉암이 활동했던 시기의 한국불교는 각종 분규로 얼룩진 시기였다. 이 시기의 상황은 어느 종단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왜색불교 척결과 불교정화라는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사찰을 차지하고자 하는 갈등과 분규로 보는 시각도 있다. 봉암은 태고법통을 중심으로 한 한국불교 태고종의 입장에서 불교정화와 수행과 사상, 포교방법을 조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봉암의 연구 성과는 한국불교계의 또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현 시점에서 어떤 관점이 옳았는가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한 일이다. 논란을 벌인다 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원상으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과거 일어났던 불교계의 정화과정과 각종 갈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봉암도 “부처님의 교설은 변함이 없지만 시대에 따라 교화의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신앙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재정적 위기 등 세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신앙의 위기는 종교성의 변화로 나타나는 문제로 맹목적 신앙에 의지하는 종교는 앞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신앙의 위기는 제도종교, 세계종교로 발전한 기존의 거대 종교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신도절벽’으로 표현될 정도로 급속한 신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신뢰의 위기는 종교인들의 범계행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종교지도력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신뢰의 붕괴는 종교적 권위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으며 종교인들이 윤리와 도덕의 고양에 앞장서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이다.

재정의 위기는 종교시설이 경매의 대상이 되거나 매물로 부동산 시장에서 사고파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종교단체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로 인해서 종교단체가 고비용 저효율의 재정구조를 갖게 되었다.

봉암이 활동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의 한국사회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발생하는 사회현상은 큰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종교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적 문제는 유사성을 보이면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불교계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응해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봉암이 제시한 포교사상은 현대 한국불교계, 특히 재가불교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유의미한 방법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하는 전법교화 방법은 문화와 수행을 활용한 포교방법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직도 전통적인 법회와 설법이 주를 이루며 재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포교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태고보우의 법통을 이어 새로운 불교를 주장하며 1970년 법적으로 창종한 한국불교태고종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종단에 비하여 재의식을 중시하는 포교에 더 의존하는 경향도 있다.

재의식을 통한 포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재의식에만 매몰된다면 급격히 변하고 있는 현대인의 종교성을 고려한 포교방법을 개발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앞에서 봉암이 제시한 포교사상을 몇 가지 개념으로 요약한 바 있다. 봉암의 포교사상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포교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포교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봉암의 포교사상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포교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봉암이 제시한 중도불이의 실천 사상은 수행포교의 원리로 활용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이익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매우 각박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로 화합하고 의견을 조정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들도 나와 너를 구분하고 이익과 손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빠짐으로써 갈등과 분규로 비화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불교계에서는 화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화쟁위원회는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편이다. 그러나 원효의 화쟁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불교적 해법을 찾고자 하는 화쟁위원회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봉암이 제시한 중도불이 사상은 화쟁과 조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첨예한 대립을 완화시키고 화합과 상호 협력의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화쟁연구소, 불교화쟁조정위원회 등의 단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단체의 연구와 구체적 실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둘째, 봉암이 제시한 혜학선수의 원리는 지혜수행 프로그램 개발로 연계시킬 수 있다. 지혜수행은 사념처의 관법수행과 결합시키면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수행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혜학선수는 정견(正見)을 체득하기 위해서 견혹(見惑)을 먼저 제거하는 프로그램, 즉 유신견(有身見), 변견(邊見), 사견(邪見), 견취견(見取見), 계금취견(戒禁取見) 등 다섯 가지 악견(惡見)을 버리도록 하고 이를 점검하는 명상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다.

봉암은 정혜(正慧)를 열반로(涅槃路), 즉,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는 표

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을 응용하면 봉암의 사상을 반영하는 명상 프로그램의 명칭을 ‘정혜 명상’ 혹은 ‘열반로 명상’ 등으로 명명할 수 있다. 그리고 사성제를 응용하여 현상의 관찰, 원인의 분석, 변화의 체득, 사회적 실천 등을 포함하는 생활 명상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명상 프로그램이 대중성을 확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전의 근거를 갖고,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현대인들이 직면한 우울, 분노,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육근을 청정하게 하는 문화치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셋째, 봉암이 제시한 자기정화 사상은 다양한 실행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스로 삼독심을 관찰하고 번뇌망상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다. 자신이 얼마나 삼독심에 휘둘리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관찰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유발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독심은 탐애(貪愛), 진에(瞋恚), 치암(癡闇) 등의 세 가지 번뇌의 요소이다. 탐애심(貪愛心)으로 인해 사물에 대한 욕심, 사람에게 대한 애착이 일어나고, 진애심(瞋恚心)으로 말미암아 화, 분노, 악행 등이 발생하고, 치암심(癡闇心)으로 인해 인과법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유발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현대인이 직면하고 있는 우울, 분노, 불안과 같은 정신적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기정화 체크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스트레스 척도 지수, 우울증 검사지수 등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스트레스 검사 척도, 우울증 검사 척도 등은 대부분 서양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불교의 원리를 활용하면 보다 보편적인 검사 척도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

내면에 있는 삼독심을 인지하고 그것이 우울, 분노, 불안 등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사람은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치유의 단계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치유명상과 관련된 실행프로그램의 개발이 연계되어야 한다.

넷째, 봉암의 화익보은 사상은 현대사회에서의 복지, 봉사, 후원 활동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사찰에서의 복지기관 운영 및 불교복지서비스 제공, 신도들의 봉사 및 후원활동 참여는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대승본생심지관경』에서는 “인간이면 누구나 부모의 은혜, 중생의 은혜, 국왕의 은혜, 그리고 삼보(三寶)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이러한 네 가지 은혜(四恩)에 보답하는 것이 보살행”이라고 설하고 있다. 불교에서의 보은(報恩)은 개인적, 사회적, 불교적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개인적 보은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사회적 보은은 중생과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불교적 보은은 삼보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에서 보은의 전통적 방법은 재(齋)를 통해 공양을 올리는 형태로 실천되어 왔다. 신도들이 사찰에서 재를 올리는 것은 정성과 함께 재화를 공양하는 의식이다. 사찰에서는 재의식을 통해 기진된 재화를 불물(佛物), 승물(僧物), 무진장물(無盡藏物) 등으로 삼분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참한 불자들의 정성이 무량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삼보정재가 무진장물로 사용된다는 것은 사회적 보은의 실천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국왕이 없거나 있어도 입헌군주국이기 때문에 국왕의 은혜는 국가의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은혜에 대한 불교적 보은은 사회 구성원들이 이익과 안락과 행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중생을 구제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을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자원봉사와 후원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섯째, 봉암이 제시한 모성교화는 여성 포교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

용한 것이다. 현재 한국 사찰의 신도들 중 대다수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전법교화 활동과 대사회적 봉사활동은 모두 여성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모성교화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들은 사찰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여성들이 사찰운영에 참여하고, 포교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포성포교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모성교화는 여성들의 모성적 본능을 일깨워주는 측면도 있고, 모성애를 발휘하는 여성들이 불교적 가치관을 수용하고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는 활동도 포함된다.

봉암은 모성포교를 위한 소의경전으로 『승만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경전은 인도 꼬살라국의 공주였던 쉬리마나, 즉 승만이 우전국으로 시집가서 그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우치고 서원을 세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만의 서원은 현대 불교사회복지의 근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승만의 서원을 모성포교의 원리로 활용한다면 불교계가 현대 사회복지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모성교화가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문화, 탈북자 새터민, 모자 가정 등이다. 다문화가정은 주로 해외의 여성들이 결혼 이민으로 입국하여 가정을 꾸리는 사례에 속한다. 2015년도 인구센서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기준으로 다문화가정의 수는 약 30만가구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에서 출생되는 아이들까지 포함시키면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 그리고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애로사항과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탈북자 새터민 가정이나 모자 가정 중에서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상담

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사찰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V. 결어

봉암 변월주(1909~1975)는 스님이면서 학자로서 일제 강점기, 불교정화, 조태분규 등 불교계의 질곡(桎梏)을 직접 경험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동분서주 하였다. 광복이후 1975년 봉암이 열반에 들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동국대를 제외하고는 불교학자들이 거의 배출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시기에 해인대학과 마산대학에서 스님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교육포교에 매진한 것은 이 분야에 있어서 선구자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봉암이 남긴 글을 읽어보면 당시 불교계가 직면한 문제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봉암이 전법교화의 방법으로 선택한 원리는 정로결택(正路決擇)으로 요약할 수 있다. 봉암은 정법의 길로 나아가기길 서원하고 청정한 안목으로 결택하여 이를 실천하는 원력을 갖추었다. 봉암이 제시한 포교사상은 “중도불이의 이념을 바탕으로 혜학을 먼저 갖추고, 자기정화를 통해서 화익보은의 포교를 실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봉암이 제시한 포교사상이 종단차원이나 우리 불교계 전체가 잘 수용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지적 초석(礎石)을 놓았음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가 놓은 주춧돌은 후학들이 교학연구하고 전법교화를 실천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현대사회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등장하고 빅 데이터로 사회구성원들의 마음을 읽고 대응하는 초고도 정보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즈음하여 과거 봉암이 경험했던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환경과 불교적 대응방안을 고민했던 그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봉암은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요소와 변화의 방향도 알고, 불교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불교계는 봉암의 서원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반한지 반세기가 다가오는 현시점에서 다시금 봉암의 포교사상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봉암의 포교사상을 재조명해 봄으로써 제방에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전법교화의 원리와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응철, 「깨달음 논쟁, 그 오래된 역사」, 『불교평론』 제66호, 2016.
- 대림스님 옮김, 『양긱따라니까야』, 초기불전연구원, 2006.
- 변월주, 「炎涼世態觀」, 마산대학보, 1964.
- _____, 「佛敎와 人生」, 『佛敎界』 19호, 1969.
- _____, 「涅槃의 實相」, 『佛敎界』 10호, 1968.
- _____, 「우리 宗團의 反省의 해로 自己淨化에 于先하기를」, 『佛敎界』 17호, 1969.
- 邊月周, 「한국의 새로운 불교로서」, 『佛敎』 2호, 1970.
- 이수장(마성), 「峰庵 邊月周의 生涯와 思想」, 『大覺思想』 22, 2014.
- 전재성 역주, 『양긱따라니까야 3』, 한국빠알리협회, 2007.
- 황정원 풀어쓰, 『우리말 능엄경』, 운주사, 2013.

Abstract

Bongam Byeon Wolju's idea of Buddhism missionary work

Kim Eung-chul
(Professor, JoongAng Sangha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d the conduct and writing of Bongam Byunwolju. And Based on the data, it analyzed the missionaries of Bongam and looked for ways to practice at the current missionary work.

Bongam's life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phase of life from birth to being a monk, The second phase of the life of a monk who experienced the process, And Third phase of a professor who devoted himself to education as a scholar.

In addition, it was summarized Bong-am's idea of Buddhism missionary work into five categories. That's the practice of the middle-of-the-road and non-duality, intellectual meditation that emphasizes wisdom, precedence of Self-purification. the missionary work that benefits the people and three treasures (Buddha, the law of Buddha and a Buddhist monk), Buddhist missionaries based on motherhood.

Bongam was a monk and also a professor. And he was the leader in Buddhist missionary work through education.

Key words

Bongam, Byeon Wolju, Buddhism, Monk, Professor, wisdom, education, non-duality, Self-purification